

1.함께 연구합시다

임프란트보철 교합면수복의 재료에는 레진이 좋은가?
아니면 포세린이 좋은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부교수 조성암

**문; 임프란트보철 교합면수복의 재료에는 레진이 좋은가?
아니면 포세린이 좋은가?**

답; 레진은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며 포세린은 충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반면 레진은 마모가 있으며 심미적인면에서 포세린에 비해 다소 떨어집니다. 포세린은 마모와 심미성에 있어 우수합니다. 그런데 자연치열의 교합과는 달리 임프란트교합면 수복에 있어서는 Osseointegration의 진정한 본질의 깊은 이해없이 는 임프란트교합을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통상적인 저작압에서는 포세린이나, 레지이나 별차이가 없겠으나, 돌을 깨문 경우, 포세린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하나도 빠지지아니하고 임프란트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진인 경우 그 충격의 많은 부분이 감소가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완전한 Osseointegration은 임프란트식립이후 약 2년이 경과하여 서야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나, 6개월로는 통상적인 교합압에는 적절히 견디겠지만 돌을 씹게되어 그 충격이 그대로 전달된다면 아직 Osseointegration이 완성되지아니한 부위에서 임프란트주위골의 미세한 파절이 일어나게됩니다.

즉 잘얻어진 Osseointegration이 파괴되는 것이죠. 포세린을 교합면수복재료로 쓴경우 이러한 Osseointegration의 파괴는 레진의 경우보다 몇배나 위험이 크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프란트보철물장착이후 최소 1년에서 1년 반까지는 레진이라는 완충재료를 쓰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악구치부위같은 골질이 좋지아니한 경우 레진의 사용은 필수입니다. 임프란트보철교합면수복재료로서 포세린이 쓰일수 있는 경우는 전치부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국내에도 Hard Resin이 많이 도입되어 임프란트재료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부구조의 충분한 이해없는 상부구조의 설계는 자칫 임프란트식립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수 있으며 특히나 상악구치부의 포세린 Cantilever는 대단히 위험한 설계가 아닌가합니다. Osseointegration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임프란트보철설계의 첫걸음입니다.